

어느 날 정조가 신하들에게 “당(唐)나라 때에 당나라 장수(將帥) 가운데 뛰어난 장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싸우기만 하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독관 이재학(李在學)이 “당시에 장수(將帥)를 선별하여 보냈는데도 매번 패하였으니 이는 당나라 황제의 의식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장수를 신뢰하지 못한 황제

그 옆에 있던 검토관 이유경(李維慶)은 “소인(小人)이 중간에서 용사(用私)하여 군무(軍務)에 대하여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니, 측근의 사람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정조는 “아무리 소인을 기용했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공을 세우지 못했던 말인가?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임금이 사람을 기용하는 방도(方道)는 먼저 신중히 사람을 가리되, 임용한 뒤에는 의심하지 않는 연후야야 공효(功效)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당나라 황제는 장수를 내보낸 뒤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군을 감시하고 옆보게 하였다. 다음으로 군사상의 일은 장군(將軍)이 전적으로 주관해야 통령(統領)이 서는데 황제는 반드시 조정(朝廷)을 경유(經由)해서 명령(命令)이 하달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장군들은 매번 공격과 후퇴의 시기를 놓치곤 했다. 한마디로 장수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조의 신뢰의 리더십



정조가 대신들과 어전회의를 하고 있다(MBC 드라마 《이산》중에서)

과자의(郭子儀)와 이광필(李光弼)같은 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군대는 백전백패(百戰百敗)했던 것이다.”

이에 이재학이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라고 하자, 정조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무슨 말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유경이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조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 수가 많은데, 대개 옛 것을 익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어 자기가 몰랐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비취볼 때 정조는 어떠한가? 첫째 인재기용의 방법에 있어 정조는 뛰어났다. 정조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큰 재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재를 기르고 정승을 고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승을 임명할 때에는 일정기간(8년)동안 한직(閑職)을 전전하게 한 다음 그 마음 씀씀이와 행적 면에서 진실성과 실적이 있어야 발탁하였다. 그리고 일단 임용한 다음에는 “그가 나를 저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로 신임하고 중용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애석하게도 위임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조는 모든 일을 친히 처리하느라 앉아서 아침을 맞고 해가 기울도록 바쁘게 일을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관료들은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저 왕의 눈치 보는 데만 급급했다. “나 혼자 1,000간의 집을 지키고 있다.” 재위말년의 정조의 탄식이 그것이다. 정치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실천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정조 자신이 보여준 것이다.

일단 맡겼다면 믿어라

정조와 같이 사람을 씬에 있어서 가끔 속임을 당하거나 실망할 위험이 따르더라도 신뢰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다. 경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부하직원 모두가 나보다 배운 것이 많고 재능이 많은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했으며, 존슨앤존슨, 짐 버크 회장 역시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신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인재는 엄선(嚴選)하되 믿지 못하겠으면 맡기지를 말고 일단 맡겼다면 믿어라.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임하고 자신은 충실한 조연자가 되거나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rue Salvation ?

▶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음의 근본원인, 죄, 마귀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죄' 라는 것은 '나' 라는 의식을 말하며 '나' 라는 의식은 '욕심' 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의 행동이 죄가 됩니다. 결국 '나' 라는 의식이 원죄요 선악과인 마귀입니다.

For man in order to be saved, man must get rid of the sin, Satan, the cause of death. Here, the sin means Self-Awareness. Self-Awareness is the source of desire and these selfish activities of man make the sin. Eventually, Self-Awareness is original sin, Satan, the Forbidden Fruit.

▶ 구원의 근본은 생명과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생명과일을 먹는 자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생명과일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승리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이 될 때 인간은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Salvation lies in the Fruit of Life. As the Bible says, anyone who eats the Fruit of Life will never die(Genesis 3:22). The Fruit of Life is God's Heart that overcomes Death, Satan, and the Self-Awareness of 'I'. When man becomes God, he cannot ever die.

▶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영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The secret of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Being reborn through the Holy Spirit means becoming God again. Without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no one can obtain salvation.

▶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였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구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도 인간자 구세주처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Since man was God previously, man can and must become God again. To become God and be saved, at the end of the day, one must overcome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the Self-Awareness of 'I' as Victor Christ.*

by Alice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담 속의 영생학
하늘의 별따기**

속담 중에 '하늘의 별 따기'란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구세주님께서도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의 별 따기'를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기에, 어떤 경우(境遇)에 이 속담을 사용하셨는지 찾아 보았다.

“여러분들이 반대생활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 반대생활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반대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은 따오면 따왔지> 불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주체 영이 되는 마귀를 꺾어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 이 이긴자입니다(2002. 8. 23 말씀).”

“이 영생을 이루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전 말씀을 다하면요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쫓아가기까지 그것이 인간으로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해낸 거예요. 인간은 그건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따면 따지> 이 영생은 못 따요.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영생을 이 구세주께서 꺾었다고 그랬죠.(2001. 8. 3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여야지,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로 가라고 했어? 바다로 기어들어가라고 했어. -중략- 오늘날 이 승리제단에 한 생명을 전도하기가 <하늘 별 따기>보다도 힘든데 바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 온 사람을 이제 그대로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족시킨다면 하나님이 우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죠?(1992. 2. 19 말씀)*”

위의 말씀 중 앞 말씀 2개는 자신을 이기고 이긴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을 구세주께서는 해내신 것이니 아무리 경의를 표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영생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하는 가시밭길이니 전도가 안 된다. 그 만큼 전도를 한 명 해내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높임 표현의 오류

우리말에는 높임의 표현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높임을 쓰게 되면 상당히 말이 이상하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공비례(過恭非禮)'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적절한 높임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장으로 계시는 이만섭 회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회장이신 이만섭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니다.'

또, 주어에 대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지금 집에 (계시다, 있으시다)'에서 주어(아버지)를 직접 높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계시다'가 맞다. 주어 간접 높임의 경우를 보면,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고서가 많이 (계시다, 있으시다)'에서는 '있으시다'가 맞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익혀보자.

1.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참 밝아요.
2. 철수야, 너 아버지께서 오시라고 한다.
3. 할아버지께서는 병이 나서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께서 오셨 습니다.
5.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6. 그분은 두 살 된 때님이 계시다.
7. 선생님, 외투가 무겁죠?
8. 선생님,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9. 어머니께 물어 보고 나서 대답하겠 습니다.
10.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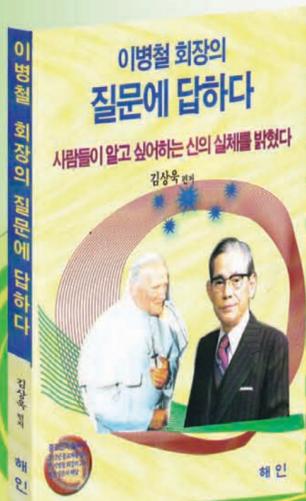
1. 밝으세요. 2. 오라고 하신다. 3. 병환이 나서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4. 왔습니다(주체인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이다).
5. 오라셔(오라고 하셔).
6. 있으시다.
7. 무거우시죠? 8. 말씀(특별히 '말씀'은 낮춤말 높임말로 같이 쓰인다).
9. 여쭙어(어머니는 말하는 이보다 높기 때문).
10. 있으시겠습니까/있겠습니까(하용)* 이승우 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 어낸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치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종말 인류의 미래

부자와 천국

長生 천국한 삶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점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